

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 동향(5월 1주차)

1. 해외 동향

국가	주요 동향
미국	<p>유통·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의 2021년 1분기 전체 순매출이 4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오프라인 매장 판매는 15.5% 감소 (출처 : 4.30 Supermarket News) * Amazon 미국 오프라인 매장 : Whole Foods Markets(503개), Amazon Fresh(12), Amazon Go Grocery(2), Amazon Go(22), Amazon Books(24), Amazon 4-Star(30, Amazon 팝업 매장(7) ○ 2020년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14.2% 증가한 85억달러로, 코로나19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 오더라도 상승세는 지속될 것(출처 : 유기농 농산물 네트워크의 '2020 유기농 농산물 성과 보고서') <p>바이어·수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사) 선사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20피트 컨테이너 가격이 6,700불까지 오름에 따라 자사에서 수입하고 있는 음료 제품의 판매가를 올려 판매 중. 한국산 음료의 현지 마켓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입 물량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예정. ○ (Y사) 현지 한인 및 중국계 마트에 한국산 팡이버섯 공급 물량의 절대 부족으로 중국산 팡이버섯들에게 유통마켓의 버섯류 판매대를 점령당하고 있음. 한국의 대형 팡이버섯 수출 업체 2곳이 FDA 적색 리스트 해소전까지 수출을 하지 않고 있어 원활한 한국산 팡이버섯 공급을 위해 5월중 한국 방문을 통해 신규 버섯 수출 업체를 모색 예정. ○ (O사) 컵밥, 라면 등 HMR 위주 수입 및 유통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해야 하나 물류 애로로 재고가 부족한 상황 발생. ○ (J사) 미국에 증가하는 채식주의자 수요에 맞춰 한국산 비건식품 수입 추진 계획.
인 니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바란 명절 휴일(5.13~14) 관련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5.6~5.17 동안 지방 도시간 이동 제한

2. 통관 · 검역 이슈

국가	이슈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에 따른 미국 전역 항들의 하역 작업 등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음. 선사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미국에 도착한 컨테이너가 돌아가지 않아 한국에서의 컨테이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인해 한국 농식품 수입 바이어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증가되고 있어 향후 한국 농식품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팬더믹 기간 임시 운송비 및 물류 참고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어들이 늘고 있음.

중국 주요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통관 현황(5.5)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가능 여부	냉장냉동식품 핵산검사 여부 (바이어 대상 의견조사)	냉장냉동식품 통관 소요 시간
베이징 (北京)		불가	-	-
텐진 (天津)		가능	실시 (샘플링 비율 : 미공개) * 품목별, 국가별 편차 큼	3~5일 (핵산검사X), 7일~10일 (핵산검사O) * 기존 1일
상하이 (上海)	공항	가능	실시 (샘플링 비율 : 약 50~70%) * 파프리카 등 냉장식품 약 50%, 냉동식품 70%	1일 (핵산검사X), 7일 (핵산검사O) * 기존 1일
	항구			3~5일 (핵산검사X), 15일 (핵산검사O) * 기존 3~5일
광저우 (广州)		가능	실시 (샘플링 비율 : 미공개)	2~5일 (핵산검사X), 7~15일 (핵산검사O) * 기존 1일
칭다오 (青島)		가능	일부 실시 - 냉동수산/냉동육류 : 100% * 파프리카 등 채소와 과일 상온/냉장 일반가공식품, 냉장 수산물 은 핵산검사 미진행	1~2일(핵산검사X), 3~4주(핵산검사O)
웨이하이 (威海)		가능		* 파프리카와 같은 냉장 채소류와 아이스크림 등 냉동 일반가공 식품은 해관 통관시 핵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시장감독관리국 요구사항으로 전용창고 입고 후 소독과 핵산검사를 마쳐야 유통 가능
스다오 (石島)		가능		

※ 통관시 검사 : 수입신고번호에 해당되는 컨테이너별 검사 비율(샘플 채취)

※ 상온 보관 식품은 현재 중국 지역해관의 검역 강화 대상이 아님